

우리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로 간다

한-싱 정상회담 합의 한 달만...초도물량 4.5t 규모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11월 2일 2025 APEC 정상회의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영훈, 이하 식약처),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성욱 광주식약청장을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행사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도축장), 서귀포시축협(가공장), 제주양돈농협(도축장, 가

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 물량은 한우·돼지고기 4.5톤, 약 2억 8천만원 규모이다.

이번 수출은 우리 한우·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축산물 수입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가 인정한 것으로, 지난 수년간 중앙부처, 지방정부, 축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축산물 수출시장 다각화를 추진한 성과다.

농식품부·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우리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싱가포르 당국과 수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와 검역 체계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농식품부는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제주도 지역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등 축산물 방역 안전을 증명받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생·검역 조건을 최종 타결했다. 특히, 제주도와 수출업체,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싱가포르 당국의 현지 실사를 준비했고, 지난 8월 현지 실사 시 적극 대응하여 수출 조건에 우리 정부가 제출하는 수출업체 명단을 싱가포르 당국의 현지 점검 없이 '목록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정부의 철저한 위생·검역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다.

식약처는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 조건 등을 안내하는 한편, 제주도와 함께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3회 실시하면서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경제교류단의 2023년 싱가포르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 전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싱가포르 수출 전제조건인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하고자 2023년 7월 농식품부 건의를 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대관령 한우연구센터 월동 준비 착착

혹한기 대비 축사 점검과 풀사료 비축 만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가 겨울철을 앞두고 해발 800미터 고지 대 환경에 맞춘 '한우 겨울나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우연구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 지역, 해발 약 800m에 자리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평균기온이 5도(℃) 이상

낮고, 겨울이 약 한 달 빨리 시작돼 혹한기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약 800두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연구센터는 방목 사육 중 이던 70여 두를 지난달 축사로 복귀시키며 올해 방목을 마쳤다.

현재 겨울철 한우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주요 비축 사료인 옥수수 사일

리지와 건초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

옥수수 사일리지는 옥수수 줄기와 알곡을 함께 분쇄해 저장·발효한 사료이다. 영양가가 높고 소화율이 우수해 겨울철 영양 관리에 효과적이다. 건초는 66헥타르 규모 조지에서 봄·가을 2회 생산되며, 수확 후 자연건조 과정을 거쳐 약 300kg 원형 배일 형태로 저장돼 겨울철에 급여한다.

겨울철 축사 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축사 내부 톱밥과 짚을 교체해 보온성을 높이고, 섯바람이 유입되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설치

작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공조한 끝에 지난 5월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을 획득했다.

싱가포르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축산물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육류 시장 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고 있는(2019년 31억불→2023년 39억불)인 축산물 수출 유망 국가로 이번 수출로 우리 축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 전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훈 실장은 선적식에서 "케이(K)-푸드와 함께 싱가포르 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잘 알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홍보·판촉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검역 협상 등을 통해 신규 시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국내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싱가포르로 한우·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지역으로, 제주 축산농가와 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며 "홍공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수출선이 다각화되면서 제주 축산물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동남아 전역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현지 유통망 구축과 마케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성욱 광주식약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축산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출규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하거나 창문 밀폐 상태 점검에 주한다. 송아지를 위한 보온등을 설치하고, 깔짚도 주기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축사 내부 결로와 높은 습도로 비진 등 피부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햇볕이 드는 시간에 환기장을 개방하고 송풍기를 가동해 공기를 순환하고 있다.

급수기 동파 예방을 위한 전기히터·배관 점검에 힘쓰고, 물 공급 차질 시 발생할 수 있는 요석증 예방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열려



▲2025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경기도청 제공)

향후 고품질 조사료 생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진행된 '2025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이천시 벌크피드영농조합법인(대표 최병무)이 최우수상을, 안성시 안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광진)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사료작물 품질을 평가해 우수조사료 품질을 홍보하고 조사료 경영체의 생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기획됐다.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그리고 동판으로 제

작된 조사료 품질인증서가 전달됐다.

조사료 품질평가는 전국의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농·축협에서 제출한 사료 샘플을 대상으로 시료 분석과 품질평가위원회의 외관 평가 결과를 종합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발했다.

시상식 후, 최우수상을 수상한 벌크피드영농조합법인의 최병무 대표는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IRG(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같은 동계사료작물의 파종 시기를 경기지역의 비 작부체계에 맞춰 봄 파종으로 변경해 하계작물로 생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최 대표는 이 방법이 경축순환 농업을 가능하게 해, 겨울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부숙된 축분을 활용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한돈자조금, 부천 상동사회종합복지관서 김장 나눔 펼쳐

농가 실천 중심의 사육관리 기준 방향 논의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11월 27일 '2025 김장, 함께 있는 능력 한돈과 함께' 캠페인 한돈 지원 선정기관인 부천 상동종합사회복지관(경기 부천시)을 직접 방문해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돈자조금은 올해 10월 김장철을 맞아 김장 행사를 계획 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김장 나눔 캠페인' 참여 기관을 모집했으며, 신청한 전국 640여 개(3.3만 명) 기관 및 단체 중 약 250곳(1.3만 명)을 선정해 김장 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수육용 한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부천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선정기관 중 한 곳으로, 이기홍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김장 행사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 ▲김미자 부천시의원 ▲강희복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및 자원봉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

희복 부관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어 김미자 부천시의원, 이기홍 위원장의 축사 및 국회의원상 시상식과 감사패 전달식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비가 오는 곳에서도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 500kg(약 100포기)을 함께 담그며 지역사회 상생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장 담그기 후에는 김장김치, 한돈 수육과 함께하는 잔치 나눔

이 이어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은 "기관 종사자, 봉사자,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2022년부터 매년 김장철마다 김장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 보존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까지 1,300여 개 기관 및 단체의 약 6.4만 명을 대상으로 수육용 한돈을 지원했다.



▲한돈자조금 제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F 한국농어촌공사